2026

# INDUSTRY CREDIT OUTLOOK

## - 디스플레이 -

KOREA RATINGS

한국기업평가

**박원우** 기업3실 선임연구원
02.368.5438
wwpark@korearating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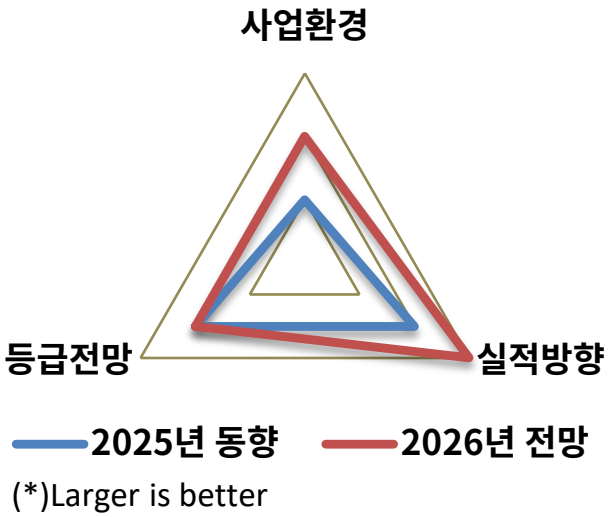
**하현수** 기업3실 책임연구원
02.368.5352
hsha@korearatings.com

**송종휴** 기업3실 실장
02.368.5465
huesong@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
KOREA RATINGS

# 디스플레이: OLED 시장 확대와 비용효율화로 완만한 실적 개선세 유지

| 2026년 산업 전망 | | | |
|---|---|---|---|
| 사업환경 | 비우호 | **중립** | 우호 |
| 실적방향 | 저하 | 유지 | **개선** |
| 등급전망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 1. 2025년 Review - 업황 개선

## 2025년 주요 패널 출하량 회복세 지속, 영업실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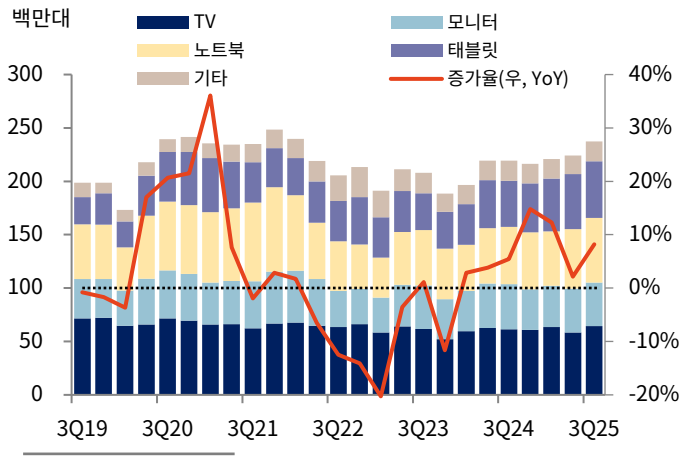
▪ **전방 고객사 신규모델 판매 호조, 모바일의 OLED 적용 라인업 확대 등으로 전체 패널 출하량 완만한 회복세 유지**

- 중화권 IT 수요 확대와 태블릿, 노트북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태블릿용 LCD 패널 중심으로 전체 LCD 패널의 완만한 증가 추세 지속
- OLED 적용 모바일 제품라인업 확대 및 신규 모델 판매 호조 등으로 모바일 OLED 패널 출하량이 증가한 점이 전체 OLED 패널 출하량 성장세 유지에 기여

▪ **2025년 업계 영업실적은 전년대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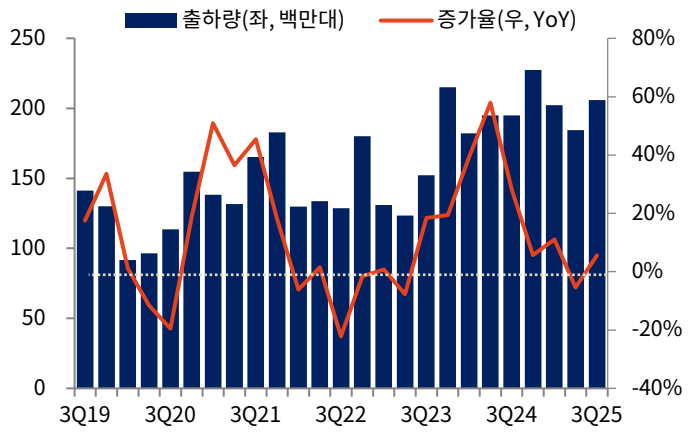
- 전방수요의 완만한 회복에도 중국업체의 공급확대로 LCD 패널가격 정체 국면이 이어졌으나, OLED 패널 출하량 증가 및 업계 비용효율화 노력으로 업계 실적 개선
- 주요 패널 업체들이 2025년 3분기 누적기준 영업흑자 전환되는 등 2024년 대비 업계 전반의 영업수익성 회복

**LCD 패널 용도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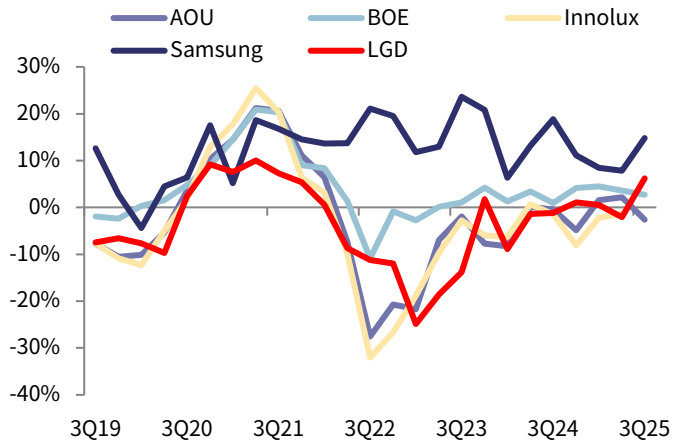



자료) OMDIA

**모바일용 OLED 패널 출하량 추이**




**주요 패널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 2. 사업환경 전망 - 중립적

## 2026년 중국 패널업계 공급부담 존재하나, 전방 세트수요의 완만한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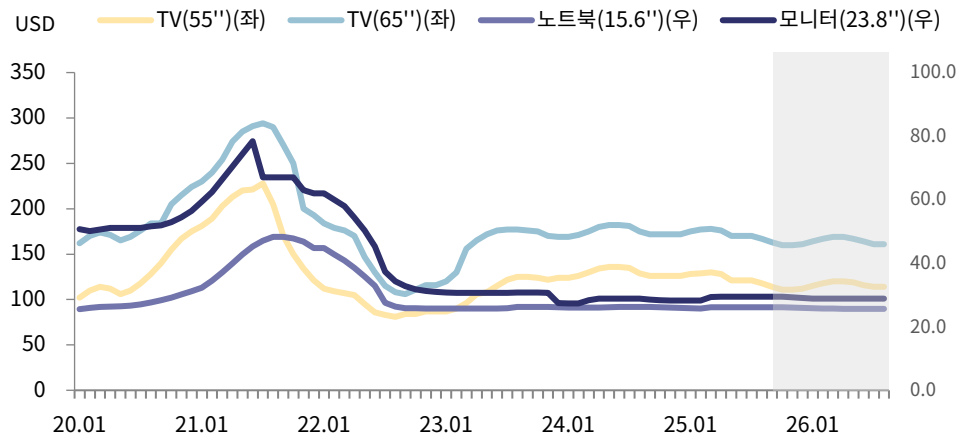
▪ **2026년 하반기까지 패널수요 완만한 회복세 이어질 전망, 다만 평균 판가는 2025년 수준 유지 예상**

- IT기기 출하량의 점진적인 회복과 대형 스크린 선호도 증가에 따른 LCD TV 패널 수요 확대 등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 패널수요 완만한 회복세 이어질 전망
- 업계 재고 정상화, 패널수요 회복에도 중국 패널업체 중심의 공급확대로 LCD 패널 판가는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전방 제품의 OLED 패널 채택 확대 등으로 OLED 패널 시장은 점진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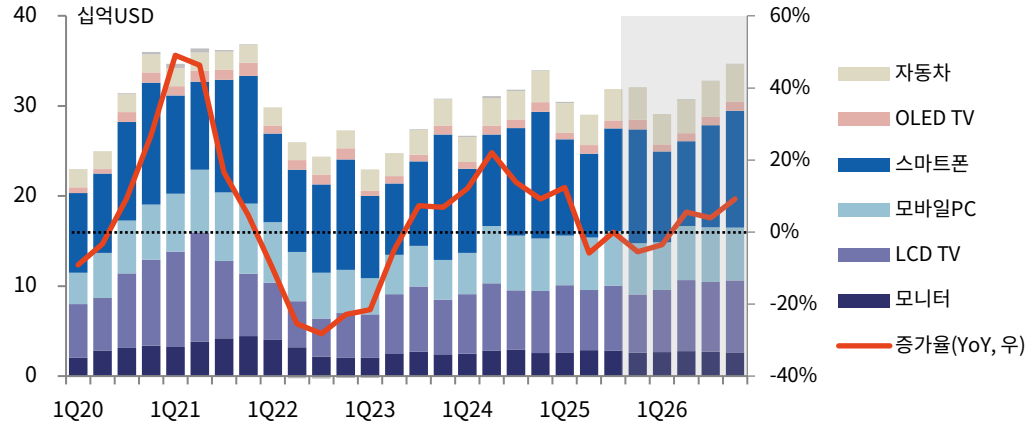
- 글로벌 최대 세트메이커인 삼성전자, 애플을 중심으로 OLED 패널 채용 확대, 고부가 차량용 OLED 수요 성장 추세 지속
- 다만, 매크로 불확실성 속 소비심리 둔화 및 OLED 채택 제품에 대한 높은 가격 장벽 등 제약요인 상존

**LCD 패널 가격 추이 및 전망**




주) 모니터는 데스크탑 모니터와 차량용 모니터 포함, 모바일PC는 태블릿PC와 노트북PC 포함
자료) OMDIA

**주요 패널별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3. 실적 전망 - 개선

## LG디스플레이, 2026년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 전망, 재무부담도 일정 수준 축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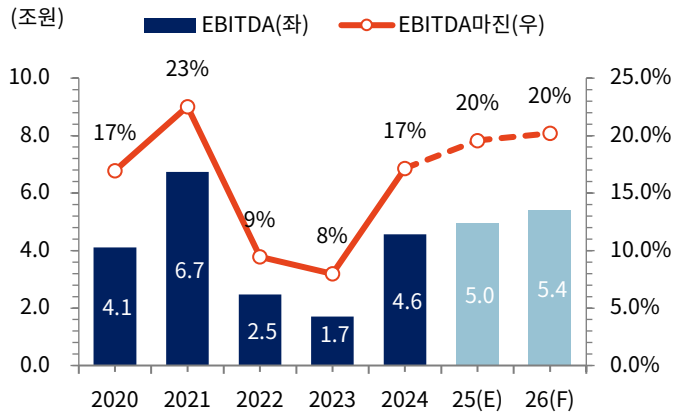
▪ **광저우 LCD 법인 매각으로 외형 정체되겠으나, OLED 비중 확대 및 비용효율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 확대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CAPA를 기반으로 한 공급물량 확대와 글로벌 OLED TV 수요 확대 등으로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의 ASP 유지 예상
- 광저우 OLED Fab 등 감가상각 종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채산성이 낮은 TV용 LCD 제품군 축소, 비용효율화 정책 등으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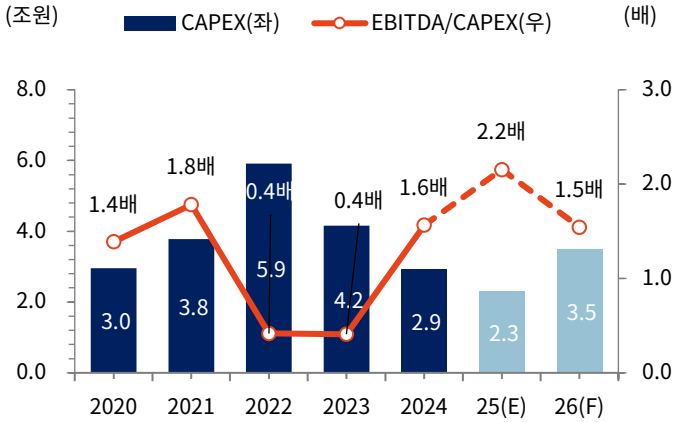
▪ **영업현금창출력 개선 등으로 점진적으로 재무부담 완화되나, OLED 경쟁력 확보 등의 자금소요로 개선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영업현금창출력 개선 등을 통해 점진적인 차입금 상환재원 확보가 가능할 전망
- 다만, OLED 경쟁력 확보를 위한 1.26조원('25.06~'27.06) 규모의 투자계획 등의 지속적인 CAPEX부담 감안시 유의미한 수준의 재무부담 완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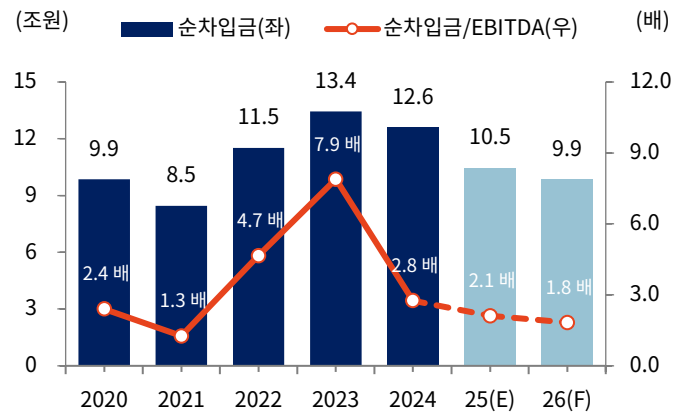
### 수익성 추이




### EBITDA/Capex 추이




### 차입금커버리지 추이




주) LG디스플레이 연결 기준
자료) 감사보고서, 한국기업평가 추정

# 4. 등급 전망 - 중립적

## 2026년 디스플레이산업의 등급전망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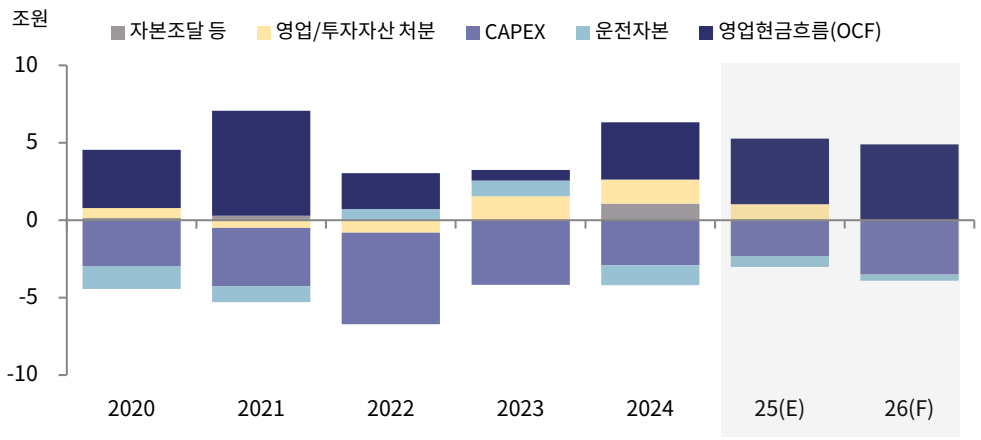
▪ **2025년 Review : 중립적**

- LG디스플레이, 북미전략거래처의 신규 모델 수요 호조로 모바일 OLED 패널 공급 확대되며 2025년 3분기 누적기준 영업흑자(0.3조원) 전환
- 보수적인 투자집행으로 자본적지출 감소, 광저우 LCD 공장 매각 대금 순유입(0.9조원)으로 차입부담 소폭 감소

▪ **2026년 Keynote: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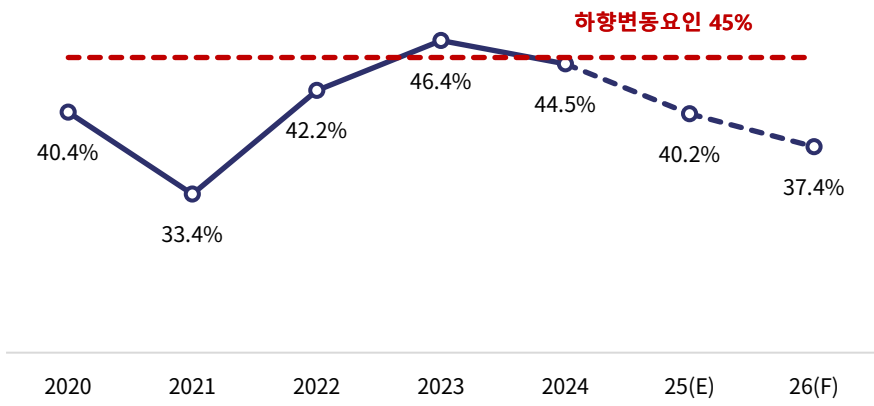
- 이전 대비 개선된 영업현금창출력과 보수적 투자집행 기조 등을 바탕으로 2025~2026년말 평균 차입금의존도는 45% 이하 수준에서 통제될 전망
- 다만, 영업현금창출력 회복 지연, 자금 순유출 지속 등을 가정 시,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무완충력의 소진으로 신용도 하방 압력 재차 상승할 가능성 내재

**LG디스플레이 연도말 현금흐름 추이 및 전망**




주) 연도말 현금흐름 추이 합산금액은 재무적가용현금흐름(ACF)을 의미함
자료) 한국기업평가

**LG디스플레이 차입금의존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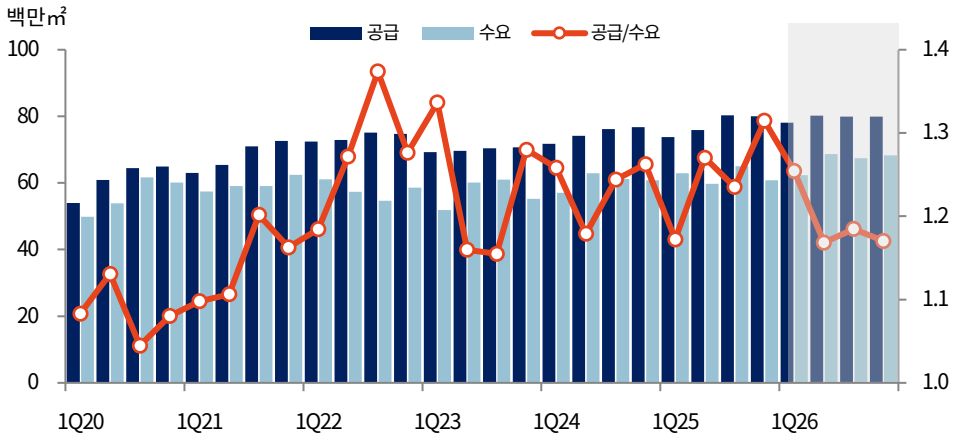
# 5. 주요 Credit issue

## Q1. 2026년 디스플레이산업 신용도의 Key Issue는?

▪ **LG디스플레이: OLED 비중 확대와 비용효율화를 통한 이익창출력 개선, 투자소요 제어 및 재무완충력 확보를 통한 차입부담 감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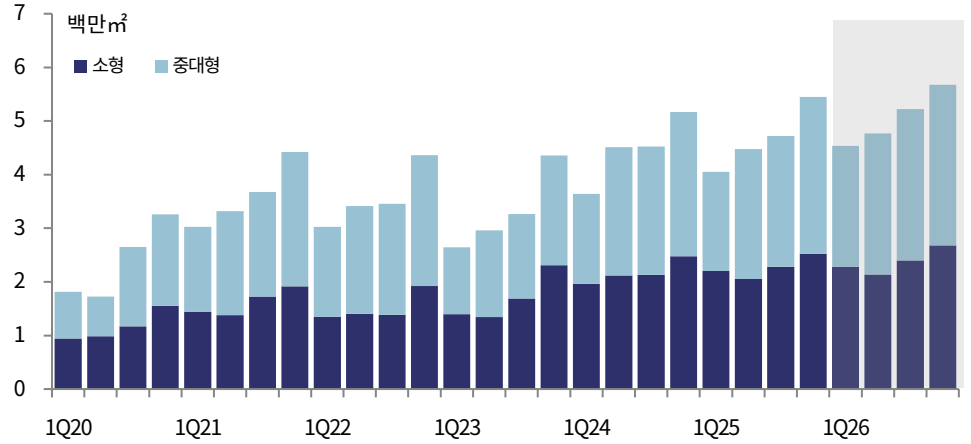
-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OLED 시장 성장 및 저수익 제품군 축소 등에 기반한 고부가 중심 제품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 글로벌 OLED TV 판매량 회복(대형 OLED), 북미 전략거래처향 패널 공급 확대(중소형 OLED), 고부가 IT LCD시장 내 경쟁우위 확보 필요
- 재무적 측면에서는 투자소요를 상당 부분 충당하는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운데, 효율적 투자 집행을 통한 자금소요 제어,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완충력 축척 필요

**글로벌 디스플레이패널 수급 추이 및 전망**




주) 소형은 스마트폰과 부속디스플레이 및 스마트워치, 그 외는 중대형으로 분류
자료) OMDIA

**글로벌 OLED 패널 수요 추이 및 전망**



# 5. 주요 Credit issue

## Q2. 모바일 OLED 시장 내 중국과의 경쟁구도 향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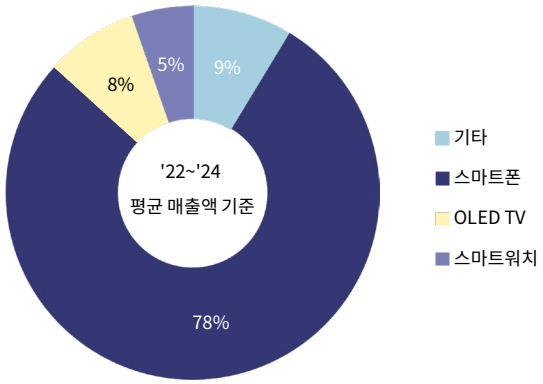
▪ **OLED 패널 시장내 모바일 비중 절대적, 업체간 점유율 격차는 과거 대비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삼성디스플레이가 우월적 시장지위 보유**

- 2022~2024년 평균 매출액 기준 OLED 패널 시장 내 모바일 비중 78%, OLED TV 및 스마트워치 각각 10% 미만 수준
- 모바일 OLED 패널 시장내 업체별 점유율 격차 축소 중이나,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점유율 삼성디스플레이 47%, LG디스플레이 17%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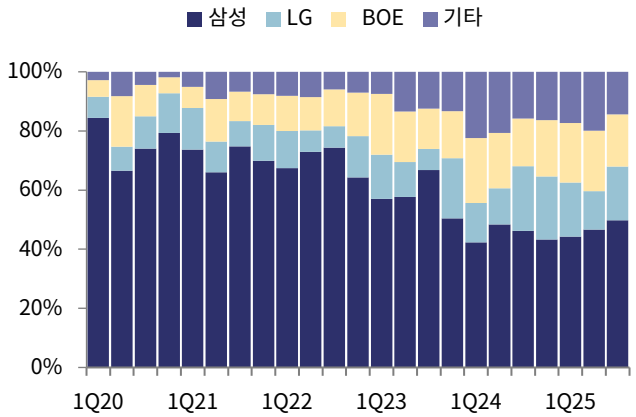
▪ **북미 전략거래처의 벤더 이원화 정책, BOE의 가격경쟁력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들의 업계 우위의 시장지위 유지 전망**

- 미국의 대중제재 강화 기조로 글로벌 세트기업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관세리스크 회피를 위한 국내 공급망 선호 기조 확대 예상
- 최근 BOE의 아이폰17 LTPO OLED 양산 지연 등 국내/중국 패널업체 간 기술격차 여전히 존재하는 점 감안시 국내 패널업체의 경쟁우위 중단기간 유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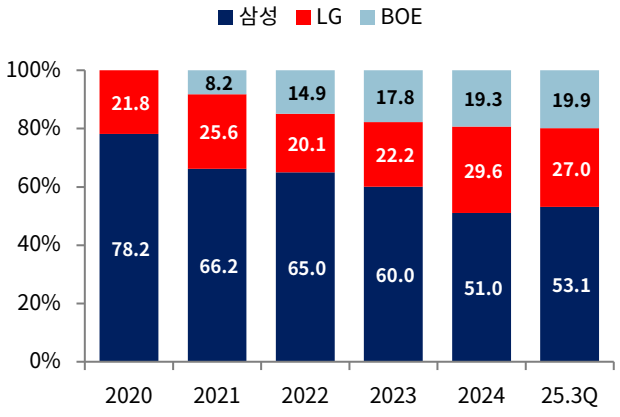
### OLED 응용처별 매출액 비중 추이




### 모바일용 OLED 패널 시장점유율 추이




### 주요 패널업체 아이폰 OLED 패널공급 점유율 추이




주) 모바일용 OLED 패널 시장점유율 추이는 글로벌 패널 업체들의 매출액 합산 기준임
자료) OMDIA, 업계자료

# 5. 주요 Credit issue

## Q3. ITC 재판 결과가 디스플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 삼성디스플레이, BOE의 OLED 관련 핵심기술 분쟁 소송 합의 도출('25.11)**

- 2023년 10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의 OLED 관련 핵심기술 침해를 근거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 2025년 7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BOE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BOE의 OLED 패널에 대해 약 15년간 미국 수입금지 권고
- 2025년 11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 간 소송이 중단되고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

**▪ OLED 핵심기술 특허분쟁 관련 일련의 이벤트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벤더입지, 가격협상력 제고에 일정수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양사 간 합의 도출로 아이폰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BOE의 공급망 배제 가능성은 감소
- 다만, 로열티 지급에 따른 BOE 패널의 원가 상승 및 가격경쟁력 약화, ITC 예비판결에 따른 기술 신뢰도 하락 등 정성적 요인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벤더입지 및 가격협상력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추가 로열티 수익 확보로 수익구조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

# Disclaimer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5, Korea Ratings Inc.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평가
KOREA RATINGS

#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 박원우 선임연구원
T. 02.368.5438
E-mail. wwpark@korearatings.com

[ICT 총괄] 하현수 책임연구원
T. 02.368.5352
E-mail. hsha@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
KOREA RATINGS